

# 중국의 지식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

-현대 중국의 진로와 전망

趙 京 蘭

(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)

# 1. 문제의식의 시작

## - 중국 대륙에 대한 시각 조정의 필요성 :

왜 이영희로부터 시작했는가(정보력의 풍부함과 선입견이 없음)

74년 전환시대의 논리, 77년 8억인과의 대화, 83년 10억인의 나라

‘해설자’의 입장? 진영논리의 해체?

研中(‘있는 사실 그대로’), 批中(唯仁者 能好人 能惡人)

- ‘중국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’를 말할 수 있는 조건

그러나 현실은 다시 崇中이나 嫌中으로

# 1. 문제 의식의 시작

(지식인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)

-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가 자본주의 국가인가.
- 중국 근현대사 100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(溫鐵軍).
- 지금 이념과 가치라는 잣대로 중국을 볼 수 있는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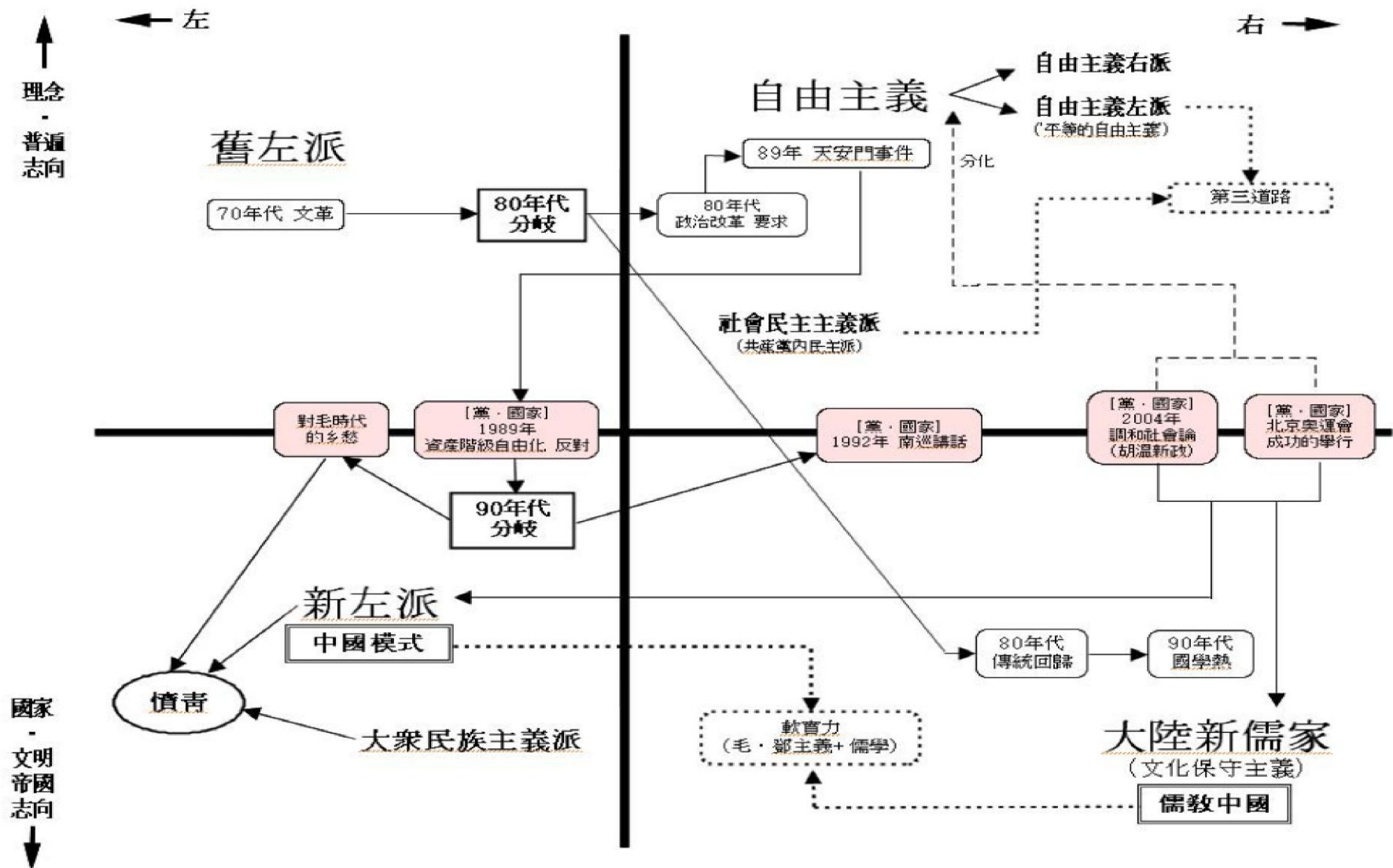
- 전망과 희망 :가행성과 가욕성의 혼재
- 사회주의 대신에 문명론 또는 제국론 대두
- >좌파-오리엔탈리즘?-가설

## 2. 중국 지식인의 역할과 중요성

- **지식인은 국가의 하위 파트너-80년대 이후**  
: 국가 - 자본 - 지식인의 삼각연대
- **제국구상과 세계구상을 위한 아젠더 만들기**  
: 싱크탱크의 역할, (야당) 또는 여당의 역할?  
: 당내부와 연결되어 있는 지식인 그룹

◆ 21세기 지식계 전체의 국가주의화 경향?  
개혁개방→남순강화→조화사회론→북경올림픽  
(독립적 지식공동체의 형성여부)

### 3. 중국 지식인 지도(\*별첨1)



## 4. 중국 지식인의 좌파와 우파

### － 진보와 보수의 아포리아

#### 중국 국가와 자본의 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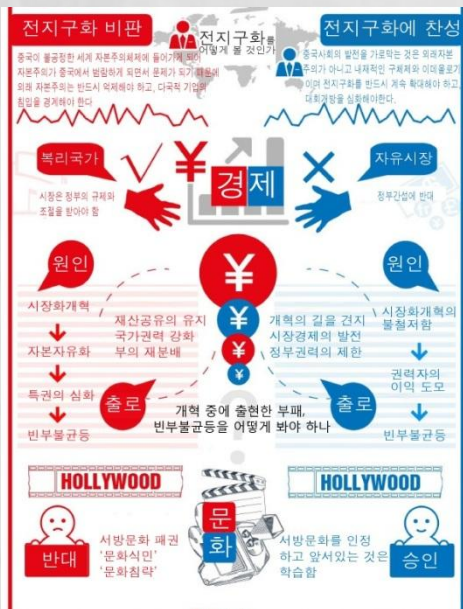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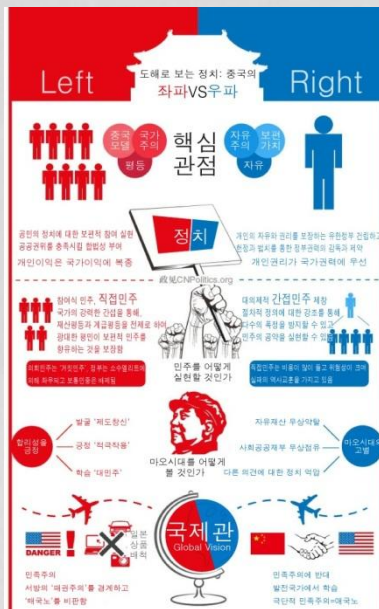
- 혼성적인 국가 자본가  
(ex : 충칭사태 국가와 자본의 관계)
- 鄧小平 이래  
形左實右의모습
- 국가와 자본은  
대립적이지 않음

중국의 부르주아가 민주주의를  
요구하지 않는 이유의 비밀

“초기 개방시 공산당이 주체가  
되어 자본가를 창출했거나  
자신이 자본가가 되었다는  
사실”

→ 지금은 “어떤 사회주의 운동도  
중국에서는 반공산주의적인  
동시에 반자본주의적일 수밖에  
없다” 는 역설

## 5. 현대중국 진보 보수 도안 (\*별첨2)



## 6. 중국 지식인의 역사경험과 위치변동

### 1차 주변화

- 1) 1905년 과거제의 폐지  
: 유교경전의 주변화
- 2) 유학과 제도의 분리  
: 유학의 객귀화(游魂)
- 3) 지식인의 주변화  
: 신유가 / 자유주의  
/ 사회주의



### 2차 주변화

- 1) 1949년 인민공화국 성립  
: 지식인과 유학, 자유주의  
제거 프로젝트
- 2) 문혁시 비림비공으로  
지식인의 완벽한 철퇴  
: 유학→맑스주의  
(사회주의 30년, 개혁개방 30년  
: 비극과 희극)

## 6. 중국 지식인의 역사경험과 위치변동

**맑스주의 -> 유학**  
**: 지식인의 주류화**

**100년 후의 유교의 복원성?**

- 정치적 **신권위주의**
- 경제적 **신자유주의**
- 문화적 **유교문화**

**2000년대 지식인 사회의 합의된 인식 : 內聖<外王, 修己<治人**  
**→심성유학의 부정(메리토크라시)**

**춘추전국시기의 백가쟁명,  
송대의 주자학 형성,  
5.4신문화운동 논쟁들**

**개혁개방 이후 30년의  
백가쟁명**

**20세기 초반의 지식인의  
상황과 현재의 상황 비교  
(국가의 강약과 거리두기)**

## 7. 중국 지식인 유파 형성

**5.4 이래 자유주의 사회주의 신유학의 3 유파 형성  
30년의 각축-사회주의 승리(유학→사회주의)**



**1990년대 들어 세 유파의 복원**

- 1980년대 신계몽 -> 1990년대 자유주의  
-> 90년대 2000년대 신좌파(신유학과 함께 주류를 차지  
(중국내의 평가 : 비판형 지식인→변호형, 찬양형 지식인)

**전통적 민본정치, 즉 메리토크라시**

(사회주의와 유학전통의 결합 : 다른 유파들이 유학을 ‘전유’ )

## 8. 중국 지식인의 유파별 미래구상

### 신좌파 - “중국모델론”

- 유가 사회주의 공화국 : 유학 + 마오시기의 평등 + 덩시기의 자유(甘陽)
  - 정당국가화론 : 중성정부가 중국개혁개방 성공의 전제(汪暉)
  - 응답형 민주 : 피통치자의 암묵적인 요구에 응답(王紹光)
- **民本思想**(정치이념의 유가적 존재형태를 가장 강하게 의식)

### 자유주의파 - “자유주의의 중국화”

- 儒家自由主義-自由主義儒家
- 헌정유교 : 동중서, 한무제시기 형성된 사대부/황권공치체제(秋風)
- 新天下主義 : 중서겸용, 고금초월(許紀霖)

### 대륙신유가 - “유학의 종교화”

- 정교합일의 유교국가 건설-정치제도→ 심성문제도 해결 가능함(蔣慶)
  - 유교국교화 : 儒士공동체, 仁政실시 주장(康曉光)
  - 공민유교 : 기독교처럼 민간유교의 측면에 주목(陳明)-신강유위주의
- MERITOCRACY-THE CHINA MODEL(2015, DANIEL A. BELL)

## 8. 중국 지식인의 유파별 미래구상

### 신좌파 - “중국모델론”

왕후이와 간양 : 중국의 현대성을 서방화의 보편서사 속에서 이탈시켜 ‘중국요소’로 새롭게 해석-중국의 발전을 신자유주의의 모델의 결과로 해석한다면 중국의 기적도 ‘자아의 타자화’

### 문명중국의 모델 부활 :

동중서-강유위(문명중국-소수민족구분의식 없음, 제국-왕후이의 초 체계사회(super systemic society)는 강유위의 문명중국의 재구축의 전통의 맥락 하에 있음)-New Sinocentrism?

-당국체제, 아래로부터 위로의 의사수렴, 노선논쟁의 반영, 사회적 보편성을 대변하는 국가, 신자유주의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적 주체? 새로운 현대성(另類現代性)의 창출가능성?

-문혁평가 : 신좌파, 포스트학과 그리고 프리드리크 제임슨, 아리프딜릭 등 서구좌파가 연맹을 형성하여 문혁 비판과 성찰을 오리엔탈리즘과 연결시켜 비판 (알튀세, 알랭 바디우 등)

## 8. 중국 지식인의 유파별 미래구상

자유주의 평가

자유주의의 중국화?

--중국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한가

참고 - 49년 이전의 '관찰'

정치는 미국식, 경제는 소련식-신민주주의론과 연합정부론

## 8. 중국 지식인의 유파별 미래구상

### 대륙신유학

→ Daniel A. Bell, The China Model, -- 'Meritocracy'

→ -업무수행능력과 사회적 소통능력

Bell argues that Chinese-style political meritocracy can help to remedy the key flaws of electoral democracy.

중국의 굴기는 유가문명이 기독교문명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라고 주장(陳贊)

## 9. 주류지식인의 공통인식

내성<외왕, 수기<치인-세 유파의 공감대

“유학좌파, 유학우파 또는 유가적 마오파, 유가적 자유주의파라는 용어가 출현할 것이다”

-유파와 관계없이 자기사상을 유학을 근간으로 하여 재구성하려는 움직임

--유학 : ‘중국모델론’의 하나의 구성부분으로 경제성장의 분석에 동원되는 측면 → 유학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갖는 복수의 유학이기보다 다시 체제유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

--중국모델론이 중국정부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그것이 담론공간에서는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음

현재의 유가담론 : 문혁시기의 批林批孔式의 권위주의적 획일주의(복수성이 허용되지 않는 동일성) + 자본주의적 획일주의 = 획일성의 강화  
→ 사고의 상실?

## 10. 중국몽을 둘러싼 전망

### 시진핑 정부의 중국몽-프레임의 대전환

혈통중국(손문)에서 계급중국(모택동)으로  
다시, 문명중국(강유위)으로의 귀환을 의미

### 두 가지로부터의 이탈

서양적 방식의 부강몽이라는 프레임에서의 이탈(엄복)  
사회주의 단계론-단선적 역사관으로부터의 이탈

→ 5.4신문화운동과 사회진화론의 패러다임의 초월

### 중국몽-유교를 매개로 한 문명론을 말하는 목적

제도와 가치의 측면에서 서양과는 다른 길을  
제시하려는 전략적 포석?

# 11. 지식인의 미래 전망(중국몽)

## - 거리두기

- : 자기상대화의 가능, 불가능
- : 노신-지식인의 ‘연극’

## - 가치와 제도의 재건(송대 이후 士는 통치계급)

- : 중국 士계층의 전통 ‘왕조의 유한’ ’ 역사의 무한’
- : 서양과의 접촉 100년 동안 형성된 근대성  
(민주 /과학 /자유 /평등)



창조적 재해석-중국몽의 출로

## 12. 지식인의 사회주의 경험과 심리학

- 반우파투쟁과 비림비공
- ‘나의 중국현대사’ ‘牛棚雜憶’  
: 트라우마-역사에는 공짜가 없다

- 비극과 희극(소설 : ‘형제’ )  
: 문혁시기 극단적인 공과 개혁개방 이후의 극단적인  
私는 동전의 양면(문혁의 복수)

조지 오웰-동물농장 :혁명이란 무엇인가  
(심리적 메커니즘)

# 13. 중국 연구 방법과 인식의 문제

-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

## - 8억인과의 대화(좌고우면하지 않는 지식인)

: ‘있는 사실 그대로’

‘인간을 뺀 이론이 아니라 인간이 있는 이론’

## - 竹內好와 李泳禧의 차이(閔斗基?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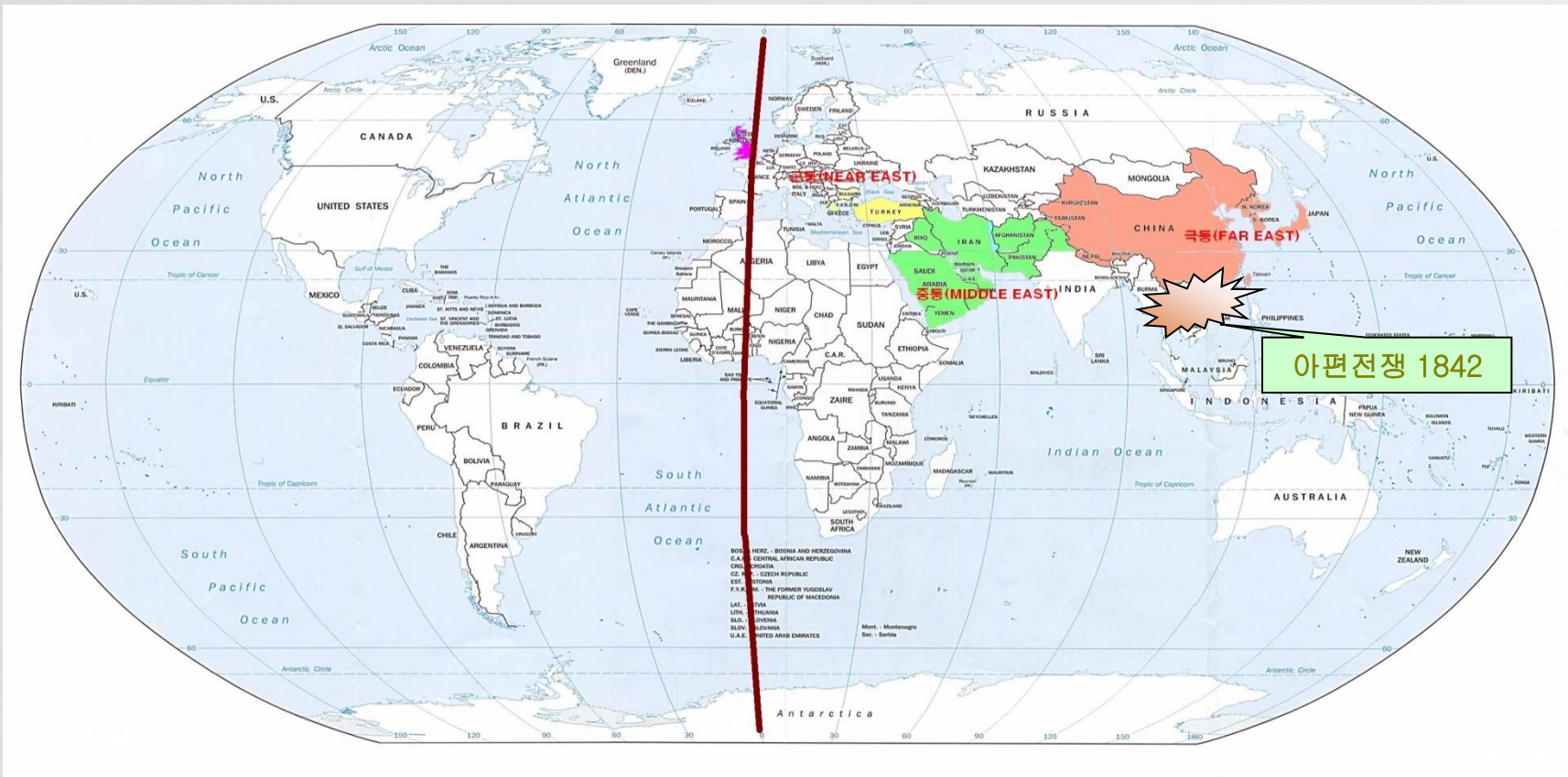
: 우리의 바람을 투사할 대상인가-중국이기 때문이 아니라(방법론 자체의 문제)

**사회주의에서 문명론으로(죽내호와 신영복)**

**죽내호의 목적 : 일본의 구제->중국의 왜곡-좌파오리엔탈리즘  
실망과 희망의 투사-사유의 불철저성**

# 사회진화론 수용의 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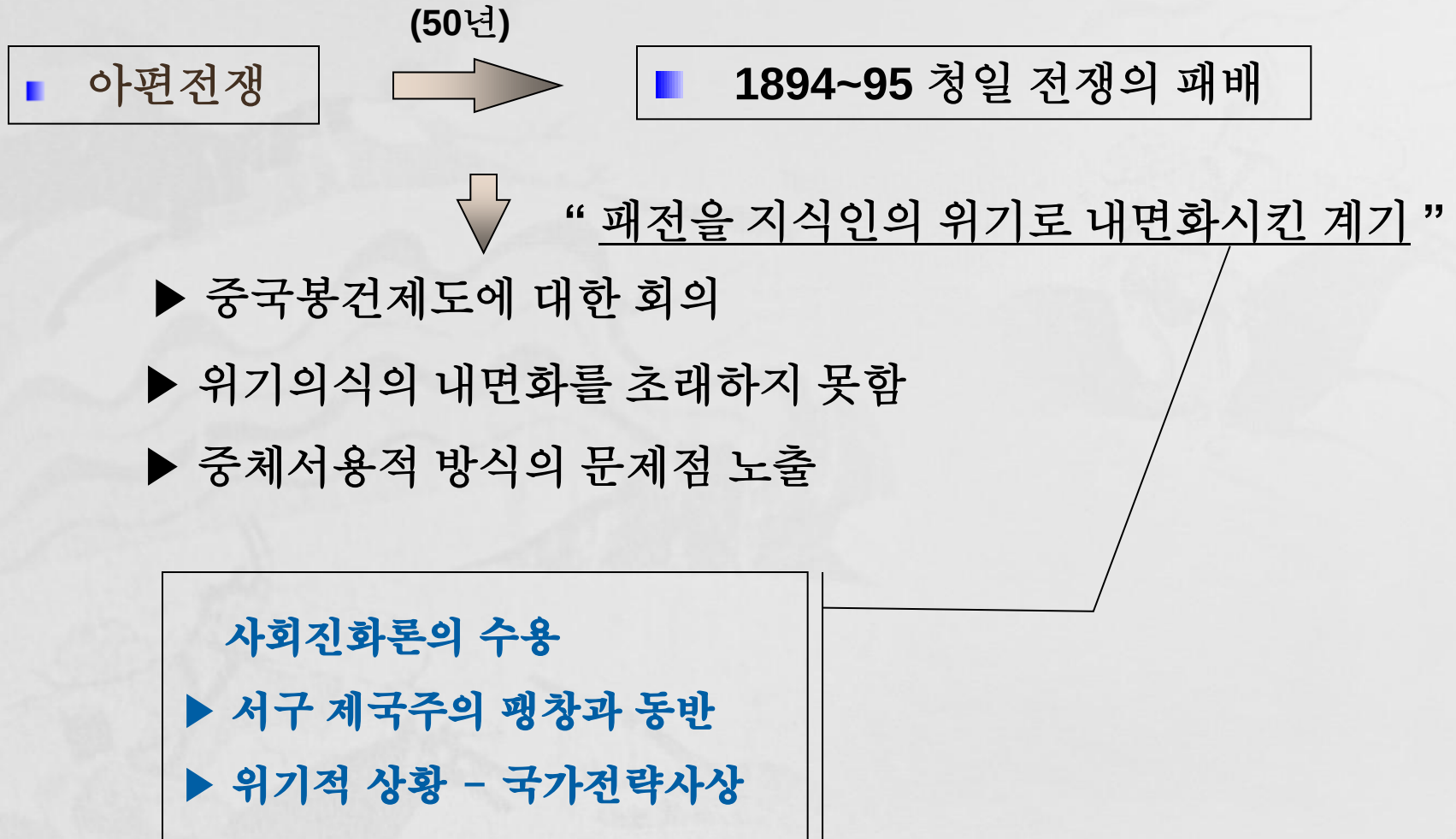
## - 19C 말 세계체제 형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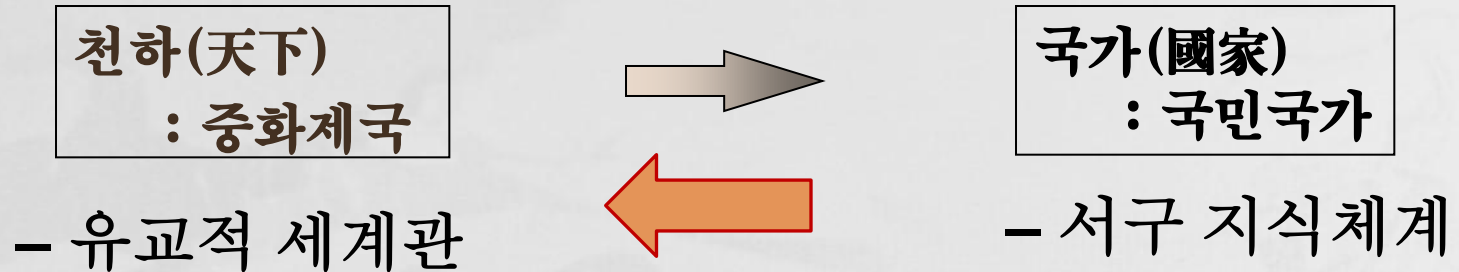
- 아편전쟁의 패배 -> 자본주의로의 편입 [“접궤(接軌)”]  
⇒ 아시아 유교문명권에 대한 위협의 시발

# 사회진화론 수용의 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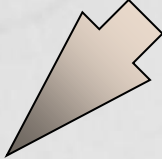
- 19C 말 세계체제 형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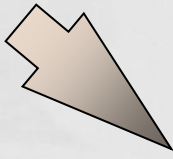
## 세계체제의 하위단위 : 국민국가의 창출



▶ 유교자체에 대한 공전(空前)의 도전 - 기존 오랑캐 침략과 차별성



전통적 존재양식의 수정으로 대응



새로운 질서 창출의 요구로 해석

## 세계체제의 하위단위 : 국가의 창출



**전통내부의 혁신모색**  
(康有爲, 1858~1927)



**사회진화론 수용 : (以夷制夷의 대응방식)**  
(嚴復, 1854-1921)

### ※전통에 대한 비판. 해석 .정리

공자개제고(孔子改制考)  
: 공자를 개혁가로 재해석

『대동서』 : 대동삼세설(大同三世說)  
거란세 - 승평세 - 태평세  
(하,은,주 3代 이래 내려오는 유토피아 사상의 결정판)

